



[여의도의 변신]  
현대가 만든  
미래형 백화점  
힐링·쇼핑 두토끼  
04



Economy

코스피 2994.98 (-75.11)	코스닥 906.31 (-30.29)
금리 (국고채 3년) 1.006 (-0.014)	환율 (USD-달러) 1112.20 (+1.60)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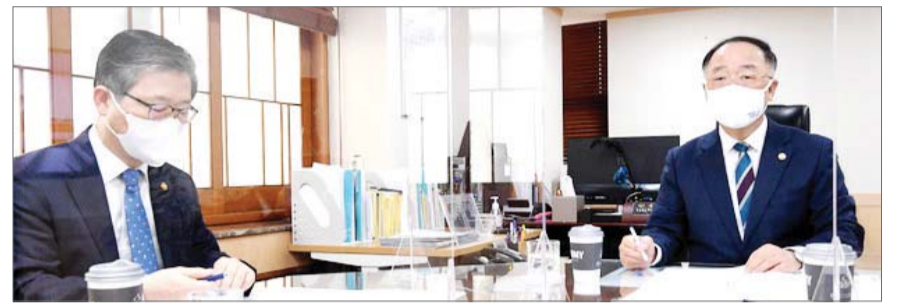
#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 7만 가구 공급

### 윤곽 드러난 2·4 공급대책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 3곳 확정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 가구

정부는 24일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곳에서 10만1000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은 3기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확기적확대방안'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국에 26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15~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광명 시흥 (1271만㎡) 7만 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로 추가해 기존 5개 지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광명 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광명 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정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 때 발표한 신

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백신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 AZ 백신 첫 출하... 닷새간 78만명분 수송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접종 화이자 백신도 내일 국내 도착

국내에서 오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공급이 시작됐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Z 백신은 이날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 백신센터에서 출발해 오후 12시30분경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이날 옮겨진 백신은 약 15만명분의 AZ 백신 초도물량이 같은 장소에서 출하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했던 75만명분보다 3만명분이 늘어난 규모다.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전용 컨테

이너에 담겨 5톤 냉장운송트럭에 적재됐고, 군사 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운송됐다. 판교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운송 차량의 위치,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지난 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관리 체계 구축·운영' 과제에 단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백신 운송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왔다.

이날 출하된 백신은 오는 25일 통합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배송이 진행되고, 백신 예방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AZ 백신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요양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9271명에 투여된다. 요양 병원 등에서 배송 5일 내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 시설에선 보건소 방문팀이나 위탁 의료기관 의료진이 사전 교육 이수 이후 백신을 접종한다. 1차와 2차 접종은 약 2개월(8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오는 26일 낮 12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운송 과정은 모두 화이자 직접 담당한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결제정보 패턴 분석 新사업 '끝없는 기회'

## 데이터가 돈이다

### 1 거센페이열풍

# 직장인 A씨는 출근길 버스단말기에 OO페이 모바일 교통카드를 찍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A씨는 OO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저녁시간에 단체로 결제된 금액은 OO페이 1/N 정산시스템을 이용해 송금한다. 퇴근하는 길, A씨는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운동복과 운동화를 OO페이를 이용해 결제했다.

OO페이 하나면 의식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현재 국내 출시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는 50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내놓은 서비스 26종 외에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서비스가 11종, 카드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8종이다.

소비자 결제내역 데이터 누적 AI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활용  
기업 간 광고 노출로 부가 수익  
실물카드 제작 등 자재값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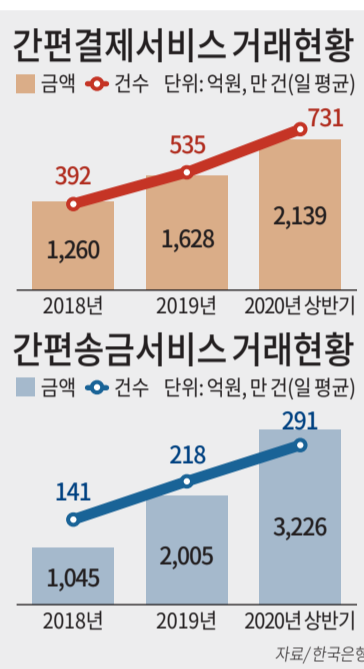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이용 급증  
간편결제·송금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 추세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같은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과 단말기 접촉 등을 거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송금하는 서비스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서비스는 일 평균 731만건으로 2018년(392만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간편송금서비스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1만건으로 2018년(141만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 금액도 2020년 상반기 3226억원으로 지난 2018년(1045억원) 대비 3배 급증했다.

### ◆데이터로 맞춤형 마케팅



소비자가 결제한 내역은 간편결제 송금서비스 업체에게 양질의 데이터로 쌓인다. 성별, 연령대, 주요 구매시간, 자주 보는 콘텐츠 등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출하는 패턴을 분석해 금융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의 지출패턴이나 자산정도에 맞는 투자상품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이용만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진 않지만 소비자가 다른 투자상품 가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간편결제 송금서비스의 경우 '락인(Lock-in)효과'가 데이터 통한 신규사업 발굴도 촉진시킬 수 있다. 락인효과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가 등장해도, 이미 투자된 비용과 습관 등으로 수요이전이 촉진되지 않는 현상이다.

예컨대 네이버페이 결제가 익숙한 소비자는 쇼핑 플랫폼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가 가능한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용해 네이버는 쇼핑몰에 네이버페이 아이콘 광고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금액도 줄일 수 있다. 삼성페이, 현대페이 등 카드사 페이가 확대될 수록 카드제작 및 분실카드 자재 값이 절감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